



오전 11시

교회소식

찬 양*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주 일 예 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주 은혜임을

다같이

다시 주 앞에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예배자

인도자

기도인도

봉 헌*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 633)

다같이

말씀교독

사도행전 4:1-22

다같이

특 송

나의 믿음 약할 때

김은희,한윤미

말씀선포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원재목사

찬양과결단*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 322)

다같이

축 도*

설교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7월 15일 (수요일) 오후 8시에 Zoom으로 ‘목자목녀모임’이 있습니다.
3. 7월 19일 (주일) Youth 졸업식이 있습니다.
4. 7월 26일 (주일) 생명의 삶 수료식이 있습니다.
5.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와 현장예배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행정지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전 교인을 2개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원 제한이 있어서 연락받으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6.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 (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은 영상기도회와 현장기도회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7.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잊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직접 혹은 우편으로 혹은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건축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9.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906,252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그리워하기 보다는...

코로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금년 안에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가 종식이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합니다. 적어도 내년까지 코로나 영향권 아래 있거나 심지어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후, 그것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바램과 달리 현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주간 미국에서는 일일 감염자 수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재확산의 조짐이 보입니다.

코로나 이전 안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결코 쉽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은 그렇게 그리운 이전 일상이 그때에는 그렇게 좋은 것인줄 몰랐습니다. 마음껏 돌아다니며, 편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일들이 그렇게 귀한 일인줄 몰랐습니다. 지나고 보니, 잃고보니 그때가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한 때 행복한 줄 모르고 지나갑니다. 청춘을 잃고 청춘의 가치를 압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지난간 후 비로소 그때가 귀한 줄 알게 됩니다. 설혹 그 당시에 귀한 줄 알았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서 보다 분명히 그것이 귀한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가장 많은 후회는 “그때 잘할 것을...” 입니다. 돌이켜봐도, 후회해봐도 그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50대가 지난 일생을 돌아보며 후회를 합니다. 젊을 때 잘 할 걸...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80대가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충분히 젊어...” 지난 일을 그리워하며 후회하기보다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시간에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무너트렸지만, 우리의 일상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전의 일상과는 다르겠지만, 이또한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전의 일상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웅크리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힘차게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후회없이...